

〈정규리그〉

KB스타즈 우승 뒤편 ‘윤종규 회장’ 있었다

무명의 김완수 감독 발탁 성공 신화...활짝 열린 ‘기회의 창’ 유망주들 성장 밑거름



KB스타즈는 22일 삼성생명체육관에서 열린 75-69로 이겨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을 24경기 만에 확정했다. 간판과 명성에 얽매지 않는 디테일을 지닌 김완수 감독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결정도 KB스타즈의 우승에 큰 몫을 했다. 우승 트로피를 앞에 두고 홈팬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KB스타즈 선수들. 사진제공 | WKBL

● 육성&성장

김감독 디테일한 지도방식에 확신
지원결정의 대원칙은 유망주 발굴

● 저변확대

피겨퀸 김연아 후원 등 16년 정성
베이징올림픽 5개 종목 10여명 후원
윤회장 “육상·수영 유망주도 기대”

청주 KB스타즈는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역대 최소경기(24경기) 신기록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22일 용인 삼성생명체육관에서 열린 75-69로 제압하고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를 모두 지켰다. 24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패만 당했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펼치며 2018~2019시즌 이후 3시즌 만에 다시 정규리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67)의 스포츠단 운영 철학이 여자프로농구단인 KB스타즈에 큰 영향을 미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다. KB스타즈는 2020~2021시즌 종료 후 프로 경력 이 약한, 무명에 가까운 김완수 감독을 사령탑으로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간판이나 명성보다는 집요하리만큼 디테일한 그의 지도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실력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여름 박신자장과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구단의 믿음에 확실하게 응답했다. 활짝 열린 기회의 창이 유망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윤 회장이 지원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원칙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유망주의 발굴이다. 또한 저변확대가 필요한 비인기종목의 선수를 꾸준히 후원한다. 대표적 사례가 김연아다. KB금융은 김연아와 16년 동행했고, 그 사이 피겨스케이팅의 저변은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이런 방향성 속에 KB금융은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에 이어 최근에는 육상, 수영, 기계체조 등 기초종목의 저변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월 4일 개막하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총 5개 종목 10여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이 KB금융의 후원을 받고 있다. 봅슬레이(원윤종·서영우), 스켈레톤(윤성빈), 쇼트트랙(최민정), 피겨(차준환·유영·김예림·이해인·임은수), 컬링(국가대표팀) 등이다. 수영 황선우, 기계체조 여서정, 육상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박원진, 손지원, 최명진, 배운진 등도 KB금융과 함께 한다.

윤 회장은 “스포츠의 기본인 육상과 수영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해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 결승 무대에서 당당하게 이름이 불리길 함께 꿈꾸고 소망한다”고 밝혔다. KB스포츠단의 성장에는 윤 회장의 지대한 애정과 살뜰한 배려가 숨어있다. KB스타즈 박지수의 정규리그 7관왕 및 트리플더블 달성, 사격단 김민정의 2020도쿄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과 같은 굵직한 기록(성적)은 물론 전지훈련, 연습 등 소소한 이벤트도 윤 회장은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선수들뿐 아니라 그들을 돕고 있는 스태프의 노고 또한 잊지 않는다. 그룹 회장의 세심한 관심을 통해 KB스포츠단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월드컵 최종예선 레바논·시리아전 출전 명단 확정



축구국가대표팀 김진규는 터키 전지훈련 동안 치러진 아이슬란드, 몰도바와 평가전에서 모두 골 맛을 봤다. 대표팀이 전술을 마치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러 뉴페이스들이 제외됐음에도 그만큼은 곳곳하게 생존한 비결이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높디높은 벤투호 ‘진입장벽’ 새얼굴 중 김진규만 뚫었다

아이슬란드·몰도바전 A매치 첫 2게임 연속골
강한 전방 패스·빠른 움직임 벤투축구에 부합
해외파 6명 합류...터키전전 멤버중 7명 탈락



FIFA WORLD CUP Qatar 2022

높디높은 ‘벤투호’의 진입장벽에 ‘뉴페이스’들이 나가떨어졌지만, 김진규(25·부산 아이파크)는 당당히 살아남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한국시간) “고승범(28), 이영재(28), 정성현(28·이상 김천 상무), 최지묵(24·성남FC), 엄지성(20·광주FC), 조영욱(23·FC서울), 김대원(25·강원FC) 등 7명이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레바논(27일)~시리아(2월 1일)로 이어지는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7·8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터키 전지훈련에서 생존한 20명에 황의조(30·보르도), 김민재(26·페네르바체), 황인범(26·루빈카잔), 정우영(33·알사드), 정우영(23·프라이부르크), 이재성(30·마인츠) 등 해외파 6명이 합류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부터 터키 안탈리아에서 진행된 1월 전술을 통해 전력을 점검했다. 15일 아이슬란드를 5-1, 21일 몰도바를 4-0으로 완파하며 전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2차례 평가전에선 총 5명의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뽑아내는 등 ‘뉴페이스’들이 기량을 뽐냈다.

그러나 최종예선 명단에선 새 얼굴들이 대거 제외됐다. 7명 중 4명(고승범, 최지묵, 엄지성, 김대원)이 처음 발탁된 선수들이었고, 이번엔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조영욱도 낙마했다. 그만큼 벤투 감독의 축구에 녹아드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입증됐다.

새 얼굴들 중에선 김진규만이 당당히 살아남았다. 처음으로 A대표팀에 선발된 그는 이번 전술 최고의 발견이다. 아이슬란드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러 1골·1도움을 올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몰도바전에서도 득점하며 2005년 박주영(37·울산 현대) 이후 17년 만에 A매치 첫 2경기에서 연속골을 터트리는 기록을 세웠다.

김진규의 강점은 단순히 득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시에 전방을 향해 공격적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선수다. ‘벤투 축구’의 핵심인 ▲전방 위적 빌드업 ▲강한 전방압박 ▲빠른 템포와 스피드에 잘 부합하는 선수다. 자신의 축구에 잘 녹아들 수 있는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벤투 감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변죽이는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김진규에게 곧장 주전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포지션과 플레이 유형이 겹치는 ‘벤투호의 황태자’ 황인범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황인범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송우 기자 raul1649@donga.com

KGC 이소영 2관왕·한국전력 임성진 첫 MVP ‘V리그 올스타전 최고의 별’ ▶3면



하나님의 교회 330만 성도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WATV.ORG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구촌 가족’에게
새 언약 유월절로 영생과 행복을 선물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온 인류의 밝은 미래, 희망찬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정부 포상·대통령 표창 |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금상 48회·라이프타임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그린월드상·그린애플상(국제 환경상) 수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